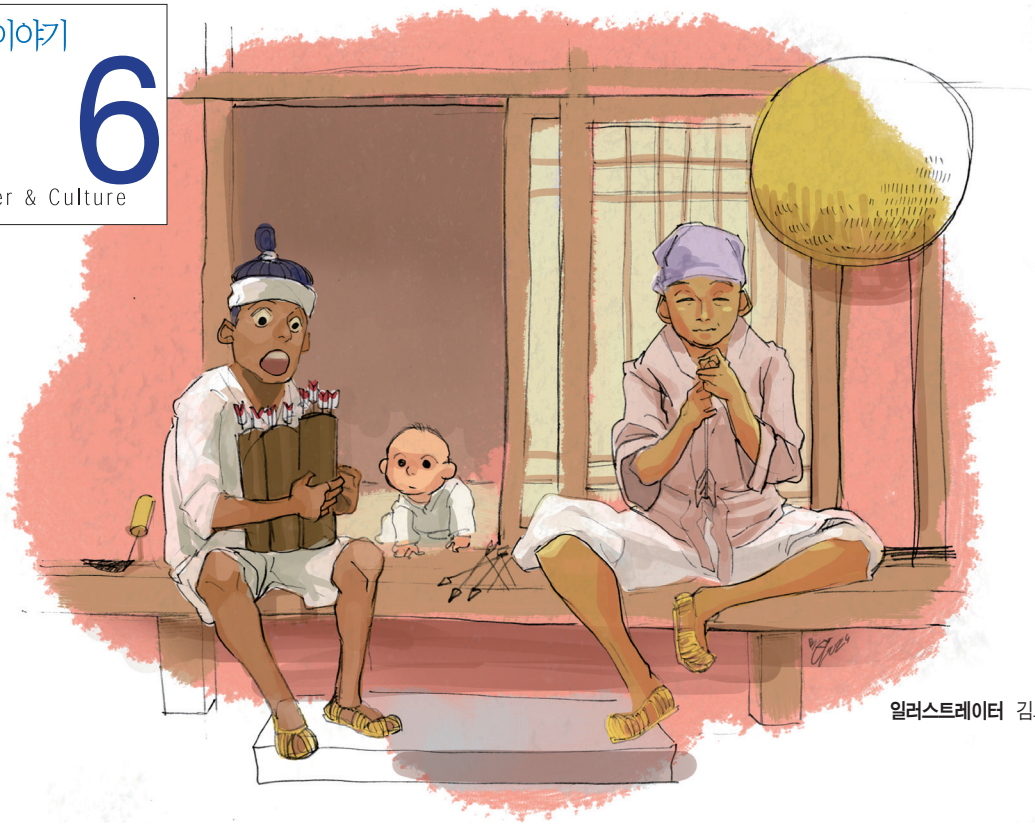
강 이야기 6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신 현 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섬진강

왜구를 무찌른 섬진강 두꺼비

섬진강은 옛날부터 고운 모래가 많다고 '모래가람', '모래내', '다사강' 등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 들어서는 '두치강'이라고도 했는데, 고려 말인 1385년(우왕 11년)에는 '섬진강'으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시대 두치강 가까이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앞 넓은 들판에 논밭을 가꾸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해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을 냇가나 강가에는 두꺼비가 많이 살았는데, 날만 어두워지면 악을 쓰고 쉴 새 없이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두꺼비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간밤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나도 그래. 두꺼비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요즘 들어 두꺼비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때문에 괴롭다며, 모이기만 하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건가? 두꺼비를 없애 달라고 우리 고을 사또께 청해 보자고."

"그래. 사또 나리라면 우리 고민을 풀어 주실 거야."

마을 사람들은 고을 관아로 몰려가 두꺼비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꺼비 때문에 못살겠다면 사냥을 해서 없애야지. 우리 하루 날을 정하여 두꺼비 사냥을 하자. 활과 화살을 잔뜩 만들어 두꺼비들을 쏘아 죽이는 거다. 이 일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서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부터 활과 화살을 잔뜩 만들어 놓겠습니다."

두꺼비 사냥은 일주일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부터 활과 화살을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며칠 만에 활과 화살이 집집마다 그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 정도 무기라면 두꺼비를 모조리 소탕할 수 있겠지? 두꺼비들이 꿈자리가 사납겠는걸."

이제 두꺼비 사냥을 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날 밤에는 두꺼비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두꺼비 사냥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듯이 말입니다.

"신기하네. 오늘밤은 왜 두꺼비들이 울지 않지?"

"그 동안 너무 울어서 목이 아파 쉬는 건가?"

마을 사람들은 별일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자 두치강 하구 쪽에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몇 척의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배 안에는 왜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는 해변 마을이나 강변 마을이 왜구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구들은 걸핏하면 배를 타고 몰려와 마을을 노략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구들은 마을을 습격하면 곡식과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는 꼭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왜구들이 한번 다녀가면 마을은 폐허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왜구들이 노린 곳은 두꺼비 사냥을 하기로 한 마을이었습니다. 왜구들은 그 마을이 곡식이 풍부한 부자 마을이라는 소문을 듣고 노략질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꿈나라를 헤맬 것이다. 나루터에 배를 대고 마을을 습격하자!"

왜구 우두머리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배들은 나루터를 향해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갔습니다.

왜구들이 워낙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곳에도 밤새 지키는 보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꺼비가 울지 않아서 보초는 일찌감치 곯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왜구들을 태운 배가 나루터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왝, 왝! 왝, 왝, 왝! 왝, 왝, 왝, 왝!"

그것은 두꺼비 울음소리였습니다. 두꺼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쓰고 울어댔습니다. 여느 때보다 몇 배나 크고 시끄러웠습니다.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다!"

"갑자기 두꺼비들이 왜 이러지?"

두꺼비들이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통에 보초가 깨어났습니다. 보초는 나루터에 정박한 낯선 배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헉! 왜구들이 쳐들어왔구나!'

보초는 서둘러 북을 울렸습니다.

"둥, 둥, 둥!"

두꺼비들이 시끄럽게 울고 북소리마저 울려 퍼지자, 고을 사또와 포졸들이 깨어났습니다.

'앗, 위험을 알리는 북소리다! 왜구들이 쳐들어왔구나!'

고을 사또와 포졸들은 무기를 챙겨 들고 강가로 몰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깨어났습니다. 이들은 왜구들이 쳐들어왔음을 알고 무기를 들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두꺼비 사냥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활과 화살이 잔뜩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루터에 정박한 배들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았습니다.

배에서 내려 마을을 습격할 준비를 하던 왜구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앗,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진다! 어서 달아나자!"

왜구들은 허둥지둥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른 배를 돌려 하구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구들의 피해는 컸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화살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왜구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왜구를 태운 배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만세! 우리가 왜구들을 물리쳤다!"

"두꺼비들 덕분에 왜구들을 무찔렀어!"

이튿날 고을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두꺼비 사냥을 하려고 활과 화살을 많이 만들었다. 그런데 두꺼비들은 어젯밤 잠잠하다가 왜구들이 쳐들어오자 일제히 시끄럽게 울어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그 동안 만들어 놓은 활과 화살로 왜구들을 무찌를 수 있었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두꺼비들이 마을을 지켜 준 셈이지?"

사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두꺼비들은 우리 마을을 왜구들로부터 지켜 주었어요."

"이렇게 고마운 두꺼비들을 사냥할 수가 없지요. 저는 두꺼비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울어도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 농악 소리로 여길 거예요."

"하하하, 저도요."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두꺼비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울어도 자장가처럼 정겹게 들렸답니다.

그 뒤에도 두꺼비들은 두치강 근처 마을을 지켜 주었습니다. 몇 달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했습니다. 농사가 잘되어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창고에는 곡식이 그득했습니다.

왜구들은 이 소문을 듣고 군침을 흘렸습니다.

"부자 마을에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단다. 그 마을을 털러 가자. 지난번엔 두꺼비 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번엔 수십

척의 배를 몰고 가자.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까짓 화살 공격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날 밤, 왜구들은 수십 척의 배를 동원해 두치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 때 보초는 졸지도 않고 눈에 불을 켠 채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을 태운 수십 척의 배가 나루터로 들어서자, 보초는 북소리를 둥둥 울렸습니다.

"앗! 왜구들이 쳐들어왔다!"

위험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고을 사또와 포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배들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았습니다.

"하하하! 그까짓 화살 공격에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어림없다."

왜구들은 방패를 준비해 왔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화살을 방패가 다 막아 주었습니다.

"큰일 났다! 화살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 지원군을 보내 달라 청하고 일단 후퇴하자."

사또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육지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쫓아라! 한 놈도 살려 보내서는 안 된다!"

왜구 우두머리는 왜구들을 시켜 그 뒤를 쫓았습니다.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왜구들에게 쫓겨 다니다가 다시 두치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앞에는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 왜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강물이 있고……. 야단났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수천, 수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두꺼비 떼는 강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후유, 이제 살았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두꺼비들을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왜구들도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이들은 두꺼비들이 놓아 준 다리를 밟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반쯤 건너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꺼비들이 모두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야!"

"사, 사람 살려!"

왜구들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수많은 왜구들이 물귀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몇 사람만이 간신히 달아났습니다.

"만세! 두꺼비가 왜구를 무찔렀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두치강은 두꺼비 '섬'자를 붙여 '섬진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두꺼비 나루 강'이란 뜻이었습니다.